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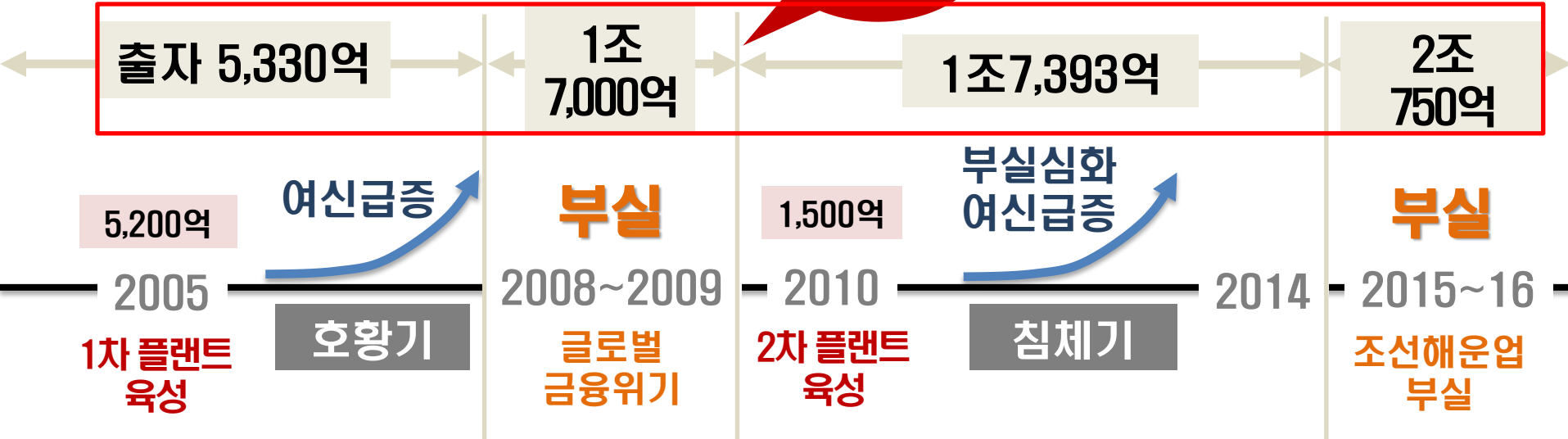
2016.10.11. 한국수출입은행

빨간불 켜진 조선.해운.해양플랜트,
구조조정 대신 출자로 부실만 키워



2000년 이후 매년 출자(총 6조 1,473억)

구조조정
실기



부실위험에 출자로 연명

08년: 수은법 개정
 - 자본금 증액(4조→8조)
 → 1차 해외플랜트 육성
 (해양플랜트 수출 금융지원 확대방안)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부실)
 → 환율 상승

12년: 수은법 개정
 - 자본금 증액 (8조→15조)

10~15년: 2차 해양플랜트 육성
 (해양플랜트 지원역량 강화)

15년 : 조선 · 해운업 부실

〈정부의 수은 출자〉 [단위: 억원]

연도	현금	현물	합계
2002	500	-	500
2003	400	-	400
2004	100	-	100
2005	200	5,000	5,200
2006	100	-	100
2007	30	-	30
2008	-	6,500	6,500
2009	5,500	5,000	10,500
2010	1,500	-	1,500
2011	1,000	-	1,000
2012	-	8,793	8,793
2013	1,000	-	1,000
2014	1,300	3,800	5,100
2015	1,300	10,000	11,300
2016	9,450	-	9,450

해양플랜트, 적색신호 무시한 채, 부실은 눈덩이

05년 5,200억 출자

05~08년: 호황기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부실)
→ 환율 상승

10~15년 : 침체기

-세계경기 침체, 선복량 과잉
-신조선 가격지수
: 08년 185, 10년 140, 14년 138, 15년 131
(자료: 클락슨)

09년: 구조조정 실기

15년 : 조선 · 해운업 부실

〈수은 여신 현황〉

(단위: 조원)

연도	선박	해양플랜트	총여신
2006	12.9	3.6	30.8
2007	19.3	4.3	40.0
2008	27.0	6.8	56.3
2009	21.3	8.7	55.8
2010	21.2	10.5	64.3
2011	17.2	16.3	67.3
2012	11.0	21.0	71.6
2013	11.1	25.8	75.8
2014	12.9	27.0	79.7
2015	17.4	23.0	81.9

※ 2006~2010까지 주로 해외건설플랜트

성동조선해양: 자금지원 → 적자수주 → 부실 악순환의 전형

구 분	관 리 방 향	채권단 지원	
		결의시기	금 액
1차 정상화 방안 (10.7.26)	정상경영 지원을 위한 RG발급 및 채무 재조정	10.10월	1,500억
		10.12월	3,000억
		11. 9월	2,500억
2차 정상화 방안 (11.12.23)	선별수주 및 자구계획 강화 통한 계속기업 유지	11.12월	5,245억
		12. 6월	1,362억
3차 정상화 방안 (12.9.10)	최소조업도 유지를 통한 생존형 경영정상화 추진	12. 9월	5,500억
4차 정상화 방안 (13.12.27)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구조 개선	-	-
5차 정상화 방안 (15.10.2)	삼성중공업 경영협력 통한 본원적 기업경쟁력 제고	15.10월	7,200억

KB, 경남은행
반대채권
매수청구

적자수주 44척,
가이드라인
22척의 두배
(589억 추가 손실)

12년 수주 4척 불과
경영관리단&수은
수주가이드라인 개정
적자수주 허용

전체수주의 80%가 적자수주
→ 총 1,694억 손실

(자료: 감사원)

정상화의 모범답안: 기업경쟁력 제고로 체질 개선

수출입은행이 4년간 살리지 못한 성동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관리하에서 1년만에 회복 기미

자율협약 체결한 2010~2014년 성동조선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 수은, 최하위 부여하고도 구체적 시정계획도 받지 않음

5차 경영정상화 방안 통해 16.1월부터 삼성중공업이 위탁 경영

삼성중공업 위탁경영 이후,

- 올해 상반기 445억원 비용절감 (재료비 79억, 노무비 95억, 인건비 67억)
- 올해 공정 준수율 80% 초과 (10년 27%, 14년 41%, 15년 51%)

한은, 국책은행의 무분별한 정책자금지원이 기업 구조조정 지연시켰을 개연성

(2015.12. 금융안정보고서, 104p)

대우조선해양, 수은의 묻지마 지원으로 쌓여가는 부실

10년 이후(해양플랜트 육성)

- 조선업 활황, **해양플랜트 진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하락
 - ※ **초보적인 해양플랜트, 저가수주, 유가하락 등이 원인**
- 15년 5조 5,051억원 영업손실, 5조 1,324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 ※ **2016.3. 수정공시, 2013년 1.2조원, 2014년 1.2조원 손실**

해양플랜트와 선박의 한도를 통합해 RG 발급

- 이렇게 RG 발급한 해양플랜트, **정상인도 0건, 인도지연 11건**
- 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은 보증잔액 71%까지 증가(타 대형조선사는 3~40%)

단순히 조선 · 해운 경기 외에 법까지 무시한 수은의 여신심사와 미흡한 관리능력

- 08~10년 대형 조선3사 신용공여한도 산출방식 임의 적용
- 신용공여제외항목 산출방식 임의적용으로 **여신한도 초과 등 편법적 자금 지원**
- 10.8월 수은, 금융위에 조선3사 신용공여초과예외승인 신청
 - 금융위, 기재부와 협의해 승인 ▶ **감사원, 구체적 판단기준 없이 운영 불합리**

정책금융 파트너 산은 자회사 살리려 장밋빛 전망

[2015년 10월 경영정상화 방안]

- 유동성 지원 : 4.2조원 (산은 2.6조, 수는 1.6조)
- 자본확충 : 2조원 (산은)
- RG 발급 : 연간 50억 달러 (산은, 수은, 무보, 시중은행)
- 자구계획 1.85조원 (이후 3.45조원 추가 자구계획 발표)

손실 급증하던 09년, 신속하게 구조조정 하지 않고

- 해양플랜트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
- 기술력 확보 · 생산준비 부족
- 단지 상선, 특수선 등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만 믿고 연명
- 그러는 사이 적자수주와 분식회계
- **올해 부채비율 500%, 올해 1분기 흑자달성(서별관회의) 등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며 “눈 가리고 아웅”**

(2) 자본확충 방안

- (필요성)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자기자본 훼손으로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구조 악화
 - 자체 영업활동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적정 재무구조 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
- (시기 및 방식) 산은 확인하여 2조원 이내(16년말 부채비율 50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본확충 규모 고려)
 - 산은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1조원 자본확충(유상증자 또는 정상화방안에 따라 지원한 신규자금의 출자전환)
 - 유상증자에 산은외 주주가 정역시, 등 참여금액과 산은의 자본확충액 합계가 1조원 이하인 경우, 이는 산은 자본확충액으로 간주
 - 산은외 주주 중자참여액과 산은 자본확충액의 합계가 1조원 초과시, 동 초과금액은 유동성 지원분에서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차감
 - 산은은 16년말까지 추가 1조원 출자전환 등을 통해 대우조선 부채비율 500%이하를 달성

신규 RG 발급

- (분담방안) 50억불씩을 기준으로 지원규모 산정
 - 신규 수주 RG 중 90%는 산은, 수은, 무보가 1/3씩 분담 (각 15억불), 잔여 10%(5억불)는 여타은행이 분담
 - 능력, KDB하나, KB, 신한, 우리 순으로 분담이되, 금액 및 최우선 선택될 배분이 적지 않은 경우 산은, 수은, 무보가 지원한 신규RG에 목표종 형태로 참여
 - 방산 관련 신규 수주권은 서울보증보험 및 방위산업진흥회가 분담 · 발급
- (보편률율) 연 0.5% 수준

STX조선해양 : 천문학적 자금투입에도 부실 못 막아

- 2013~2014년 불과 1년 사이에 **6조 5,404억원** 투입 결정 → 2016년 결국은 법정관리
 - ※ 2016. 8월말 현재 채권단 여신잔액 5조 8,148억원 중 수은 여신 8,667억원
- 서울중앙지법, “자율협약 없이 조기 회생신청 했다면 4조원 이상 자금 들이지 않고 구조조정 성공했을 것” (2016.5.31. 중앙지법 보도자료)
- 2010~2016년 **8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낙하산**
 - ※ 산은 총재(1), 산은 부총재(1), 금감원 국장(1), 수은 본부장(1)
 - 수은 경영지원본부장, 낙하산 사외이사로 투입(2011.3~2015년 근무)

2010.	유동성 위기 시작	
2013.4.	채권단 신규자금 6,000억	
2013.6.	채권단 신규자금 2,500억	
2013.7.	채권단 신규자금 18,500억 채권단 출자전환 6,993억	경영정상화 MOU체결
2014.2.	채권단 신규자금 18,000억 채권단 출자전환 13,411억	
2016.1.	기결의 4,530억 용도변경	우리/신한/하나 반대채권 매수청구
2016.5.	법정관리 신청	

기업부실 폭탄돌리기에 동참한 대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은행장	702 (432+270)	816 (493+323)	790 (483+307)	885 (533+352)	543 (362+181)
전무	494 (318+176)	578 (364+214)	606 (381+225)	623 (392+231)	456 (275+181)
감사	361 (245+116)	384 (265+129)	413 (277+136)	427 (286+141)	405 (275+130)
이사평균	341 (228+113)	468 (295+173)	486 (306+180)	414 (272+142)	364 (247+117)
임원평균	419 (278+141)	564 (354+210)	569 (357+212)	553 (351+202)	416 (281+135)
일반직 직원 평균	91 (86+5)	101 (92+9)	102 (93+9)	102 (93+9)	99 (91+8)

2016.9월 골프 등 회원권 보유 현황

골프	콘도	헬스	합계
4건: 48억원	16건: 4억5천만원	1건: 1천7백만원	21건: 52억8천만원

※ 2006~2013년간 골프 등 회원권 매각 차익 : 13건 10억3천만원

수은 자업자득, 떠밀려가는 추가 출자전환 (2조원) ?

	15.6월 자구안 16년 예상	16.9월 실적	15.6월 자구안 17년 예상	16.6월 17년 예상 수정
상선	54억달러	8.8억달러	55.1억달러	43.8억달러
해양플랜트	48달러	-	48억달러	27.9억달러
특수선/기타	13.2달러	1억달러	13.5억달러	11.1억달러
합 계	115.2달러	9.8억달러	116.6달러	82.8억달러

15.10월, 1차 자구안 1.85조 (유동성 확보 7,498억, 손익개선 1조 957억)

→ 16.8월말 기준 0.9조원 달성에 불과

16.6월, 2차 자구안 3.45조 (물적 자구계획 1.59조, 인적 자구계획 1.26조, 손익개선 0.6조)

16.6.23. 수출입은행,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 발표

- 수출경쟁력 확충과 조직 쇄신안을 골자로 한 2대 부문 5개 추진과제 발표

- 대외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및 조직쇄신 · 대외신뢰 회복 목적

→ 외부컨설팅 통해 9월까지 혁신안(5개 추진과제, 세부 실행방안, 추진일정) 마련

16.9.20.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서면답변, '9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

16.10.10.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서면답변, '아직 보고서 작성 중'

수은 혁신안이 마련되더라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혁신안 불감증

수은이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조직개편 및 혁신안

→ 총 27번

2006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기능강화

2006년 감사원 지적 → 외부로부터의 혁신 요구받은 뒤 계속해서 혁신안 발표

- 08.12. '3년 연속 직원 임금동결 및 임원 기본연봉 40% 삭감'
- 09.10. '임금 5% 삭감 및 연차휴가 25% 의무사용'
- 11.7. '책임경영 강화'
- 13.12. '복리성 예산 확 줄여 긴축경영 돌입'
- 14.6. '리스크 조직 독립·확대'
- 14.6. '1인당 복리후생비 59% 삭감'
- 15.12. '경영진 연봉 5% 삭감 및 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매번 반복되는 혁신안, 마지막 기회에 선 수출입은행

- 1. 수은 여신리스크 관리 일대 혁신**
- 2. 자구책으로 본사 Sales & Lease Back**
- 3. 부실 키운 수은 경영진 책임 묻기**
- 4. BIS 명분으로 무분별한 출자 지양,
손실보전 활용**

- **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출자 방식 아닌
재정차입 방식 전환 [기존 손실보전 규정 활용]**
 - **BIS비율 연계 자본확충 구조는 무책임 대출,
허술한 리스크 관리 야기**
- ※ **미 수은 : 대출재원 대부분을 재정으로부터 차입 및 이자지급**

미국 vs 한국 수은 비교

(단위: 조원)

	한국	미국
납입자본금	8.9	1.2
잉여금 등	2.2	-0.9
자본합계	11.1	0.3
여신(대출)잔액	66.9	120.4
법상여신한도	-	1500억 달러
여신(대출)잔액/자본합계	6배	401배
관리운영비(억원)	2,107	1,553

자료: 각 기관 감사보고서, 2015